



### 질문 셋.

<고양소식>은 지금도 **고양시청 홈페이지**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?

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였죠. 접속 경로가 복잡하고, 단순 PDF 다운로드 방식이라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. 클릭 한 번, 터치 한 번으로 연결되는 '고양원픽' 속 웹진의 가장 큰 특징은 '반응형'이라는 점입니다. PC와 태블릿, 스마트폰 등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으로 표출되기에, 보다 효과적으로 <고양소식>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, e-book 형태의 전자책과 올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오디오북도 만날 수 있습니다. 특히, 오디오북은 '고양낭독봉사회'와의 협업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.



### 질문 넷.

'고양원픽'에서는 **어떤 콘텐츠**들을 접할 수 있나요?

앞서 소개한 <고양소식> 웹진이 대표적입니다. 고양시 유튜브 채널 '고양TV'와의 연계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. 기존 업로드 영상은 물론, 신규로 업로드 된 영상까지 '고양원픽'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반응이 뜨거웠던 영상 콘텐츠를 모아 볼 수 있는 '해시태그 고양', '기획영상', '브이로그', 'LIVE다시보기' 콘텐츠도 흥미롭습니다. 이밖에도, 고양시 SNS에 업로드 된 정보와 고양시 블로그를 무대로 활약하는 소셜기자단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고양시의 한 주간 소식을 담은 '뉴스레터'와 시민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정보로 구성된 '생생소식' 역시 '고양원픽'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.



'고양원픽'이 시민과 고양시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'원 픽(One-Pick)'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
### 질문 다섯.

새롭게 오픈한 만큼, 시민과의 **쌍방향 소통**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

물론입니다. '고양원픽'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사이트 내 '독자마당' 코너를 구축,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짜 소식을 전하는 '알림마당', <고양소식>에 원고 및 사진을 기고하거나,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'원고·사진 참여', '이벤트 참여', 보다 나은 <고양소식>과 '고양원픽'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'온라인 설문'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. 또한 <고양소식> 구독 및 변경 신청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

### 질문 여섯.

'고양원픽'이 **시민에게**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?

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.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오픈한 '고양원픽'이 시민 삶 속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 이제 남은 것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. '고양원픽'이 시민 모두의 '원 픽(One-Pick)'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.

